

이중명사 구조의 은유와 지시 작용

이렌 탕바/장인봉 옮김

1. 서론

발화체의 해석은 반드시 지시 차원을 문제삼으며, 통상 문자적 의미에 비유적 의미를 대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시 차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언어의 이 지시 차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것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잃어버린 존재론의 대용품인 직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려면, 믿을 수 있고 조작적인 메타언어적 도구를 제공할, 지시 작용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목적으로, 여기에서는 은유라는 제한된 각도에서 지시 작용에 접근할 것이다. 우선 은유가 지시 작용의 어떤 전체적 개관을 주는지 살펴보고, 흔히 사용되는 “qui est un N”의 구조를 지닌 주석이 몇몇 이중명사로 된 은유적 구조에 부당하게 부여하는 지시체적 특성들을 재검토할 것이다.

2. 은유적 의미와 지시 작용: 개요

은유적 해석은 통시적이거나 공시적인 관점으로 연구될 수 있다. 통시적 측면에서, 은유는 의미를 변화시켜 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는 어휘적 다의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어원 학자와 사전 편집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단어의 역사와 오늘날은 불투명한 명칭의 초기 동기를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colis(소포)라는 단어에 '포장된 짐'이라는 첫번째 의미 옆에 적는 '성가신 사람'이라는 의미는 유추에 준하는 은유적 전이라고 할 것이다. 어떤 명칭의 은유적 특징은 그것의 일상적인 지시적 작용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공시적 측면에서, 은유적 해석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할 것이다. 첫번째 유형은 관용어에서 속담까지 비유적 발화체에 어휘적으로 약호화된 고정된 은유적 해석을 부여하고, 여기에 유추를 통해 문자적 의미 안에 들어 있는 형식을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marcher sur des charbons ardents*(직역하면, 뜨거운 석탄 위를 걷다)은, '아주 미묘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다'라는 관습적인 은유적 표현을 갖는, 완전히 만들어진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Il n'y a pas de roses sans épines*(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라는 속담도 절대적인 행복은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환기시킬 때만 장미나 그 가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중 방향의 지시적 과정이 문제다. 사람들은 그 의미가 자동적으로 약호화된 은유적 해석을 일으키는 형식을 발화한다. 따라서, 지시체는 특별한 지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담화의 한 대상에 접근하게 해주는 이런 우회는 의미 있으며, 지시체를 어떤 식으로 재현하게 해준다.

3. '한정사 N1 N2' 유형 은유의 의미 분석

'한정사 N1 N2' 구조를 지닌, 이중명사를 지니는 은유에 본 연구를 한정할 것이다.

I. '한정사 N1 N2' 구조의 일반적 소개

노아이 M. Noailly는 두 개의 명사를 결합시키는 구조에 규칙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네 가지 가치를 구분한다. 특성화 *classification*, 이것은 기본 가치로서, 특수 자질로 나타나는 동일화 *identification*, 등위 *coordination*, 상보화 *complémentation* 등 나머지 세 가지 가치보다 우세하다. 이 가치들을 제시하기 위해 예를 각각 하나씩 볼 것이다.

1) un discours fleuve

이는 특성화다. N1 discours는 관계되는 지시체가 속하는 부류 un discours를 명명한다. N2는 '큰 강인 담화'에 관한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문제되는 discours를 특징짓는다. 따라서 N1은 지시체를 나타낸다.

2) l'arbre Eternité

이는 빅토르 위고 Victor Hugo에서 나온 동일화의 예다. "L'Eternité est un arbre(영원은 나무다)"라는 술어 기능을 가정하는 l'arbre qu'est l'Eternité(영원인 나무)라고 주석을 붙일 수 있다. 앞의 경우와 반대 순서로, 여기에서는 N2가 지시체를 나타낸다.

3) Il est venu en costume cravate.

costume, cravate는 각각 구성 요소가 지시적 자율성을 지니는 쌍을 형성한다. 즉 어떤 사람이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왔음을 내포한다.

4) la manière Kahn

이는 상보에 관한 것이다. N2는 통사적으로 N1에 의존하고, la manière de Kahn 같은 전치사 구문에 대응한다.

노아이는 이 가치들간에 몇 가지 중첩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처음 두 개의 가치만이 은유적 표현을 제공하는 유일한 지시체를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가치는 같은 분류 관계에 의존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치 중 하나만을 다룰 것이다. 따라서, 특성화 유형의 '한정사 N1 N2' 구조를 사용하는 은유적 구문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II. '한정사 N1 N2' 에서 특성화하는 은유 구조

노아이(1990)의 설명을 다시 취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의

"N1은 N2이다"라고 해설할 수 있는 경우, N2는 N1에 "특성을 부여한다"고 말할 것이다. N2는 "qui est un N2" (p. 36)라는 관계절 형태로 명사군 안에서 확장될 수 있다.

2) 예

① un livre événement est un livre qui est un événement.

② un mot agrafe est un mot qui est une agrafe. (p. 36)

3) 설명

"이 예들에서 더 자세한 설명 없이 ÊTRE 동사라는 환언문으로 충분할 것이다. [...] ÊTRE 동사 환언문은 명사적 은유 표현의 뛰어난 방법 중의 하나다" (p. 37).

미리 밝혀야 할 것이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 노아이는 ‘comme(처럼)’ 나 ‘presque(거의)’를 암시한다. 근접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이 환언문에 가져다주는 향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p. 37), 노아이는 이 단어들이 필수불가결하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III. 비판적 평가

환언문이 ‘le N1 N2’ 구성의 은유적 해석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면, 직관적으로, “qui est un N2”로 환언하는 것은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면 “qui est un N2” 구조의 주석을 통해 이 표현들을 분류로 가져가는 몇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노아이가 정확하게 지적하였듯이, “V ÊTRE un N2”라는 통사적 범위는 분류시키는 동화 *une assimilation classificatoire*를 부과한다(p. 37). 그러나 분류는 어떤 분야에 고유한 분류 체계를 이용하고, 한 언어의 어휘·담화 구조 안에 이것을 통합시킨다.

어휘 차원에서, 분류학은 상위어/하위어의 위계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예문 ②의 un mot agrafe의 해석이 은유적 재분류에 의존한다면, N1 mot가 N2를 고정된 어휘적 위계 안에 기입하는 특성을 받기를 기대한다. 만일 agrafe가 그 자체가 도구인 일종의 ‘고리’라면, mot는 ‘일종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찰되는 바는 이와 다르다. un mot agrafe 안에서, mot의 해석은 고리와 도구라는 부류 안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반대로, 상위어의 의미적 특성 전달을 막는다. 이 전달은 위계적 분류의 기본 장치를 구성한다.

여러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N1 N2로 된 발화체는 분류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선, 이 발화체들은 분류가 거부하는 완화와 강화의 표현이 가능하다.

- ③ un mot qui est comme une agrafe
- ④ *une agrafe qui est comme un crochet
- ⑤ un mot qui est une vraie agrafe
- ⑥ *une agrafe qui est un vrai crochet

둘째, 분류학은 고정된 위계 질서를 정의하는데, 반드시 긍정적인 포함을 나타내는 긍정문에 의해 표현된다.

- ⑦ *une agrafe n'est pas un crochet.

반대로, ②의 은유적 해석은 부정 발화체에 쓰인다.

- ⑧ un mot n'est pas une agrafe.

끝으로, **agrafe** 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mot**는 **agrafe**의 부류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mot**는 **agrafe**가 되지는 않은 채, **agrafe**의 모든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②에서 **mot**는 **agrafe** 부류를 정의하는 특성들 중 하나, 즉 'crochet métallique servant à attacher(붙이는 데 쓰이는 금속 고리)'에 의해서만 특성화될 수 있다. 이 경우 붙이는 기능이 문제다. 또한 le N1 est un N2라는 은유적 발화체가 정의하는 특성들 중의 하나보다는 오히려 N2의 이미 알려진 상징적이거나 전형적인 특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la femme est une fleur(여자는 꽃이다)에서 살펴보았다. 문맥상, 여자는 꽃의 화려함 혹은 연약함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이 짧은 분석의 결과는 특성화가 분류에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성화와 분류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고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IV. 특성화와 분류

부분-전체 *méronymique* 관계를 통한 우회는 특성화와 분류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리겔(M. Riegel, 1998)은 어휘에 약호화된 부분-전체 관계는 발화체 안에 그대로 제시 *posé*될 수 없는 전제 *présupposé*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⑨처럼 말하지 않는다.

⑨ *Pierre est grand et a une tête.

하지만, 어떤 일시적인 특성을 도입하면, 문장은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부분-전체라는 어휘 관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특징짓는 데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⑩은 가능하다.

⑩ Pierre est grand et a une tête bien sympathique.

담화에서 일시적인 한 대상 'tête sympathique'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약호화된 어휘 단위 'tête'를 대신하고 어휘에 약호화된 정보와 다른 정보들을 전달하게 해준다.

유사한 장치가 '한정사 N1 N2'라는 구조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가설을 세울 것이다. 특성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분류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분류시키는 주석을 통해, ②를 le mot qui est une agrafe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4. '한정사 N1 N2' 은유 분석을 위한 대안

이중명사 구조의 통사적 특성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N2 앞에 한정사

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유일한 지시체를 구성하는데, le N1은 동일화를, le N2는 특성화를 보증한다. 따라서 ⑪과 ⑫를 접근시킬 수 있다.

⑪ un film scandale

⑫ un film scandaleux

형용사와 le N2는 le N1을 특성화하는 데 쓰이고, 이는 지시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le N2의 작용은 그에게서 지시적 자율성을 빼앗는 한정사 없이 사용된 것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 은유적 구조의 두번째 특성은 이 구조가 구체적인 상황과 특별한 화자에 연결된 순간적인 감상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구조들은 특별한 술어 작용을 통해 담화 안에서 모을 수 있는 특성들과 유사한 일시적인 유추를 인식하는 데 근거한다.

이 두 가지 특성은 ②-1과 같이 비분류적인 술어 형식으로, N1 N2의 특성화하는 구조에 주석을 달도록 한다.

②-1 un mot qui fait agrafe/qui agrafe

따라서 관사 없는 N2는 개별화된 한 사물 부류에 상응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적 술어에 통합되는 구별된 개념을 명명한다.

마찬가지로, 예문 ①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①-1 un livre qui fait événement

직관적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다.

①-2 un livre qui est un événement

‘être un événement’ 이 ‘faire événement’ 을 내포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안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aire N2’ 로 술어적 주석을 다는 것은 ‘être N2’ 로 주석을 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지닌다. 분류가 가져오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면서 이 주석은 공통된 특성의 술어 작용에 근거한, 특성화하는 해석만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이 주석은 이 개념의 특별한 특성을 의미하기 위해 전체 개념을 사용하는 은유의 과장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⑪ un livre scandaleux는 주어진 책의 내재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있게만 해주는 반면, ⑫ un livre scandale는 일시적인 술어를 개념적인 특성화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의 책을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축소한다. un livre qui fait scandale는 일종의 un livre scandale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un canapé-lit처럼, 어휘화된 몇몇 복합명사의 형성을 sorte de canapé qui sert de lit(qui fait lit)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qui est un N”이라는 분류적 주석 대신 이 논문에서 제안한 “qui fait N”이라는 술어적 주석의 적절성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dét N1 N2’에서 특성화하는 은유 구조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특성화와 분류가 양립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었고, 비분류적인 관계 위에 특성화의 근거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Guiraud, P., *Les locutions françaises*, Que sais-je? No. 903, Paris: PUF, 1973.
- Noailly, M., *Le substantif épithète*, Paris: PUF, 1990.
- Rey-Chantreau, *Dictionnaire des expressions et locutions françaises*, Paris: Le Robert, 1979.
- Riegel, M., "Conditionnements méronomiques en syntaxe: deux types de construction revisitée," *X^e rencontres linguistiques en pays rhénan* (à paraître), 1998.
- Saussure, F. de (éd. 1975 par T. de Mauro),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16.
- Tamba, I., "Sens figuré et changement de sens," *L'information grammaticale*, No. 3, 1979.
- (à paraître), "Métaphore et classification: la femme est une fleur," Coll. de Strasbourg, Paris: PUF.